

상생의 종교윤리 범례연구

김 용 환
충북대학교

〈요 약〉

21세기는 홍익교육 이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새로운 종교윤리 범례로 이행되면서, 자기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상생의 종교윤리 범례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곧 자기와 타자 사이의 '플러스섬(plus-sum)'현상을 지향하는 종교윤리 범례이다. 공생(共生)이 '나와 남'이 같이 사는 일시적이며 상극적 평화범례라고 한다면, 상생은 종교다원 상황에서 '너와 내'가 공공으로 함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종교윤리 범례라고 할 수 있다.

근대조선에는 개벽사상이 나타나서 기존의 음양(陰陽) 이분법 사유방식을 해체하고 상극을 서로 이어주고 살리며 상생하려는 횡단매개의 교육범례가 나타났다. 상극의 대립구조를 함께 매개하려는 과정에서 상복(相福)과 상화(相和)의 중매(中媒)사상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반영하는 『천부경(天符經)』의 삼원매개의 삼재사상과 연관되어 상생과정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범례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의 상생윤리 구조를 밝히고 이에 따른 종교윤리 범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서로의 화복을 미래지향적으로 복되게 하는 상복(相福)의 매개과정과 서로의 화복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는 상화(相和)의 매개과정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경우는 홍암(弘巖) 나철(羅喆)의 홍복상생의 종교윤리 범례로 나타나며, 뒤의 경우는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의 해원상생의 종교윤리 범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들을 비교하여 고찰하면서, 상생 종교윤리의 실천화용 관점에서 종교교육 방안을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상극의 대립 사이에 횡단매개하는 생명살림의 교육범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상극에서 상생으로 살려 서로가 복되고 서로의 화를 진정시켜야 미래지향적 생명살림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홍암은 서로 복되게 하는 도리로서 홍복(洪福), 증산은 서로의 아픔을 해소하는 상화(相和)의 도리로서 해원(解冤)의 종교윤리의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행복과 평화를 지향하려면 실천화용의 종교교육 범례를 지속적으로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화복(禍福)의 맥락을 상호 매개함으로써 근대이후 한국의 상생 종교윤리 교육범례 좌표설정 마련

에 미래지향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홍익이념, 상생, 횡단매개, 상복, 상화, 홍복, 해원, 범례, 세계시민성

I. 머리말

21세기의 세계시민성시대는 선천의 홍익이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상생의 종교윤리 범례가 중시된다. 화복에 있어서는 자기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상복(相福)과 상화(相和)의 종교윤리 범례가 요구된다. 이는 곧 자기와 타자 사이의 '플러스 섬(plus-sum)'현상을 지향하는 종교윤리 범례이다. 공생(共生)이 '나와 남'이 같이 사는 일시적이며 상극적 종교윤리 범례라고 한다면, 상생은 '너와 내'가 공공으로 함께 생명을 살리는 종교윤리 범례라고 할 것이다. 상생의 종교윤리 범례는 '이해 당사자 상호 간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살리는 가운데 서로를 복되게 하는 호혜관계를 중시한다.

근대조선에는 개혁사상이 나타나서 기존의 음양(陰陽) 이분법 사유방식을 해체하고 상극을 상복(相福)하고 상화(相和)하는 횡단매개의 종교윤리 범례가 나타났다. 상극의 대립구조를 매개하는 과정논리로서 상복(相福)하고 상화(相和)하는 중매(中媒)의 교육이 강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삼원사유가 나타난『천부경(天符經)』의 삼재사상과 연관된 종교윤리 범례이다. 이러한 상생의 종교윤리에서는 서로를 살리는 실천화용의 교육 범례가 중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극의 대립을 이어주고 매개하는 중매 역할의 종교윤리 범례를 근대조선 이후의 상생사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 근대 상생의 종교윤리 범례를 모색하고 이에 따른 실천화용 방안을 논구하고자 한다. 화복에 관한 비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홍암(弘巖: 1863-1916, 本名 羅喆, 檀君敎 中興祖)의 홍복상생, 증산(甞山: 1871-1909, 本名 姜一淳, 甞山敎의 創始者)의 해원상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홍암은 인간화복의 문제에서 서로가 복된 도리를 부각시켰다. 서로 복된 도리를 살려 홍복(洪福: 큰 행복)상생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일본 궁성 앞에서 3일 간 단식투쟁을 하는 등 외교를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단군천제를 모시고 민족존엄을 회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는 '순명삼조(殉名三條)'라는 유서를 남기고 '조식 폐기'(調息廢棄: 조식으로 스스로 숨을 끊음)방법으로 운명하였다. 그의 홍복상생은 항일독립투쟁사에서 큰 성과로 기록되고 있는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증산은 인간화복의 문제에서 서로의 화를 푸는 도리를 부각시켰다. 과거의

화를 풀어가는 해원상생의 방안으로 인간존엄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인간이 신명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원한상극의 해소를 위한 진정한 평화질서 구축의 해원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사상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사상까지 수렴하였다.

이처럼 홍암과 증산은 각각 상극과 상생의 사이에 상복(相福), 상화(相和)를 매개삼아 홍복(洪福)과 해원(解冤)할 수 있는 종교윤리 범례를 중시함으로써 성통공완(性通功完) 교육, 도통진경(道統眞境) 교육을 실천화용 방안을 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홍암의 홍복상생의 종교윤리를 살펴보고, 증산의 해원상생의 종교윤리 교육범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홍복상생(洪福相生)의 종교윤리 범례

1. 삼망상극(三妄相剋)

19세기 말엽부터 침략주의가 기세를 올려 동란기운이 감돌았고, 과학문명의 발달은 소유욕을 발달시켜 인류정신이 소외를 낳아 상극으로 대립하였다. 안으로 국정은 피폐하고 밖으로 외세침범으로 국가존망이 경각에 있었다. 불합리한 차별제도로 수탈과 탄압에 시달린 민중은 도탄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개화의 틈을 타서 서양의 물질문명은 도덕타락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말세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가부장제도와 제사의식의 유교의례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민중에게 차별적 불이익을 초래하자 점진적으로 사회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다. 조선의 배불정책에 의해 불교는 위축되었으나 사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무단 삭발하는 승려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조 말기의 사민체제 붕괴와 유민증가는 공상적 미래나 내세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당시를 목격한 홍암 나철은 신성과 상통하지만 생명으로 배태되는 순간, 상극요소의 삼망(三妄), 얽힌 마음(心)·불순한 기운(氣)·메마른 육체(身)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삼망(三妄)의 인간은 이해득실의 문제에 직면하면 타자를 자신과 적대의 존재, 상극관계로 파악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성(神性)과 상통하는 삼진(三眞: 性·命·精)이 삼망과 함께 인간에게 부여된 품성이다. 여기서의 삼진(三眞)과 삼망의 관계는 '순수와 얽힘'의 '수박(粹粕)'관계, '순종과 불순'의 '순불순(順不順)'관계, '기름짐과 메마름'의 '비척(肥瘠)'관계를 형성하여 차이를 드러낸다.¹⁾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순수와 얽힘의 정도와 근기(根氣)에 따라 상근(上根), 중근(中根), 하근(下根)으로 태어난다고 할 것이다.²⁾

1) 서일, 『회삼경』, 『譯解倥經四部合編』 (서울: 대종교총본사, 1986), 150쪽.

그러나 삼진(三眞)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性)·명(命)·정(精)의 품성이 있기에, 삼망(三妄)을 바로잡게 되면 서로가 복된 상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삼진(三眞: 性·命·精)과 삼망(三妄: 心·氣·身) 사이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것이 삼도(三途: 感·息·觸)의 매개가 중시된다. 여기서 ‘감(感)’은 기쁨, 두려움, 슬픔, 노여움, 탐냄, 싫어함(喜懼哀怒貪厭)의 ‘느낌’이며, 식(息)은 향내, 쉼내, 한기, 열기, 전기, 습기(芬寒熱震濕)의 ‘숨 쉼’이며, 촉(觸)은 소리, 빛, 냄새, 맛, 음탕, 살탕음(聲色臭味淫抵)의 ‘부딪힘’이다.

삼망(三妄)의 “마음(心)은 길흉(吉凶)의 집(宅)에 해당하고, 기운(氣)은 생사문(生死門)에 해당하고, 몸(身)은 ‘정욕의 그릇’(情慾器)에 해당한다.”³⁾ 이처럼 집(宅), 문(門), 그릇(器)으로 비유할 때, 삼망은 상극작용의 기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생진실과 상극기틀을 이어주고 매개하는 삼도(三途: 세길)의 상복과정을 통하여 “느낌에서 느낌의 주인 되고, ‘숨 쉼’에서 손님되고, 부딪침에서 종이 된다.”⁴⁾

이와 같이, 종(奴), 손님(客), 주인(主)의 관계를 서로 복되게 하는 품성에 적용하면, 중인(衆人), 철인(哲人), 신인(神人)으로 나뉜다. 먼저 못사람(衆人)은 삼망(三妄)의 착하고 악함, 맑고 흐림, 그리고 후하고 박함 등이 서로 섞이어 가달길(境途)에서 임의로 달리다가, 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어 결국 죽게 되는 괴로움에 빠진다. 다음의 ‘철인(哲人)’은 ‘삼망의 마음을 참된 성품으로 되돌려’(反忘卽眞)의 삼법(三法: 止感, 調息, 禁觸)의 매개를 통해 삼진(三眞: 性命精)을 회복한 사람이다.

철인에서 나아간 신인(神人)은 참된 성품으로 신성과 상통하는 ‘반진일신’(反眞一神) 매개를 통하여 삼신기행(三神機行: 通性, 知命, 保精)으로 마침내 ‘세 신성’(三神性: 大德, 大慧, 大力)을 성취한 존재이다. 이처럼 홍암 나철은 삼망(三妄)을 해소하여 만민이 함께 복을 나눈 ‘하늘 백성’(天民)은 홍복상생(洪福相生: 四海同胞의 弘益福樂)하여 동락(相生同樂)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홍복상생은 타자와 더불어 사랑을 애함(愛合)으로 나누는 가운데 사해동포주의를 실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로 복을 나누는 매개로서 한울공경, 영성수련과 공공봉행을 중시하고 화를 복된 도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2. 상복매개(相福媒介)

1) 한울공경

한울공경은 천신에 대한 공경으로 종교제의로 나타나서 제천의식(祭天儀式)으로 봉행된다. 홍암 나철은 단군교 중광(重光)에서 마지막 순교(殉教)에 이르기까지 한울공경을 정성으로 봉행하였다.

2) 같은 책, 151쪽.

3) 임아상, 『삼일신고 진리훈(注)』, 『譯解倂經四部合編』 (서울: 대종교총본사, 1986), 30쪽.

4) 같은 책, 31쪽.

정월(正月) 보름날에 처음으로 한배검의 신위(神位)를 받들어서 서울 재동 취운정(齋洞翠雲亭) 밑 초가집에 모시고 제사를 드리시며 한검의 큰길을 펴시니 그 날이 곧 대종교의 중광절(重光節)이라. …(중략)… 총본사 전리 강 우(總本司典理姜우)를 보내사 백두산 위에서 한얼께 제사 드리게 하시고, 또 개천절(開天節 : 十月三日)에 고령사(古靈祠)의 제사를 청호에서 차리시다.…… 또 이듬해인 병진(丙辰 ~ 1916) 정월 초하룻날에 특별히 선의식(선儀式)을 남도본사에서 받드시고, …… 어천절(御天節 ~ 곧 3월 15일)의 선의식은 남사 천전(南司天殿)에서 받드시다. …… 7월 15일에 마니산 참성단(摩尼山誓城壇)을 멀리 절하시고 선의식을 남사 천전에서 받드시며 곧 천궁에 모여서 천서례(天序禮)를 행하시다. 그 해 8월 15일에 (마지막 선의식을 마치고* 필자 주) 구월산 삼성사에서 조천(朝天)하시다.⁵⁾

단군제사는 변화를 거치며 대종교 중광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다. 중광을 거치면서 단군교는 단군에 대한 제사를 민족이 함께 거행하는 제사로 바뀐다. 대종교가 단군교에서 교명을 변경하면서 단군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다. 시조로서의 단군을 천신(天神)과 동일시하여 천신단군(天神檀君)으로 표현된다. 천조의 삼신(三神: 桓因, 桓雄, 桓儉)은 단군과 위격을 함께하는 존재로서 강조한다.

먼저, 의례공간을 천궁과 천진전으로 나누어 각각 천궁에 무형천신을 봉안하고 천진전에 단군을 봉안한다. 또한 대제, 중제, 소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경배의식을 제정함으로써 근대시간에 맞추어 의식을 전개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전통 제사형식에서 강도유형(講道類型)으로 전환하면서 공희(供犧)에서 벗어난 영성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의식을 제정한다.⁶⁾ 선의식의 제천의례에서 육식을 버리고 곡류와 과일, 채소류를 사용하였다. 홍암이 선의식에서 곡류를 택한 것은 희생제와 다른 고유, 신교(神敎)의 전통으로 복귀함이다. 이처럼 채식의 선의식에서 제물은 신과 인간을 횡단매개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선의식의 제물구성은 대종교의 신성을 존재의 공통기반 역할을 보여준다.

선의식으로 변화된 제천의례 역시 기존의 제사 형식을 극소화시키고 희생제적 요소를 제거하여 유교적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제례의 몸동작을 남겨두어 강도형의 의식에서 놓이기 쉬운 엄숙함과 경건함을 살려내었다. 또한 제물의 수와 제기의 모양을 통해 교단의 형이상학을 표현하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전통 의례소가 근대 사회에 새 양식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⁷⁾

홍암 나철은 선의식의 ‘주유문’(奏由文)에서 선의식을 ‘하늘소통’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

5) 김교헌, 『홍암신형의 생애』, 『홍암 신형 조천기』, 19-21쪽.

6) 『대종교중광 60년사』, (서울: 대종교총본사, 1971), 193-200쪽.

7) 이육, 『대종교의 선의식과 단군의례』, 『신종교연구』 8권(한국신종교학회, 2003), 151-152쪽.

어찌다가 수백 년 앞부터 교문이 닫히고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선의까지 없어져서 한얼과 사람이 서로 느끼는 길을 끊었더니 얼마나 다행하게 한울운수가 돌아와서 한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시자 …… 감히 제사를 받들고 한얼께 아뢰나니 옆드려 비옵건대 밝으시게 적은 정성을 살피 시와 널리 억만 백성으로 하여금 한가지로 복리(福利)를 입고 다 대종교에 돌아와서 백대가 되도록 「이울」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철의 지극히 바라는 것입니다.⁸⁾

여기서 홍암 나철은 서로 복되게 하는 상복매개를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만백성의 복리가 영원히 폐하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는 홍복기원이다. 아울러 천신을 인간존재의 뿌리로 보면서 천신은혜에 보답하려는 보은(報恩)도리도 중시한다. 삼신사상에는 신과 인간의 탄생에 삼신(三神)으로서 조화주 한인(桓因), 교화주 한웅(桓雄), 치화주 한검(桓儉)의 공공참여가 있기에 신공(神功)도 가능해진다. 신인은 오족으로 역조창생의 시조(始祖)가 되고, 오훈으로 대종교를 여는 교조(敎祖)가 되고, 오사로 나라의 존위를 이루는 국조(國祖)가 된다. 신인은 삼일 원리로서 신국(神國)으로 돌아가 합일하는 길을 연다. 신은 삶의 은혜로운 존재이기에 신의 은혜를 ‘천덕(天德)’이라고 부르며 함께 칭송한다.

숭(崇)은 높임이고 덕은 ‘한울 덕’이다. ‘한울 덕’이란 가문 땅에 단비, 그늘진 골짜기에 봄별 같은 것이다. 잠깐 사이라도 진실로 ‘한울 덕’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 되지 못하고 사물은 사물 되지 못한다. 이리므로 밝은이는 부지런히 ‘한울 덕’을 칭송한다.⁹⁾

이처럼 한울공경은 그 뿌리에 천신이 자리하며, 천신의 거대한 창조과정으로 세상일을 깊이 깨달아 천신이 베푼 ‘천덕(天德)’을 은혜로 갚는 지행상통(知行相通)의 실천을 위한 영성수련을 요청한다.

2) 영성수련(靈性修鍊)

영성수련은 신성(神性)을 발휘하려는 실천수련이다. 이는 신성내재 사유에 근거한다.¹⁰⁾ 내재신성은 신의 3대 권능, 대덕(大德), 대혜(大慧), 대력(大力)으로 드러난다. 초월신의 본성, 대덕(大德), 대혜(大慧), 대력(大力)은 삼진(三眞: 性, 命, 精)을 이룬다. 부딪침을 조절하여 참된 정기(眞精)에 이르는 길이 금촉법(禁觸法)이고 금촉법은 강건, 덕행,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神性)능력을 보여준다.¹¹⁾

8) 나철, 『奏由文』, 『홍암신형조찬기』, 39쪽.

9) 『참전계경, 崇德 條』, 『대종교경전』 (서울: 대종교출판사, 2002), 101쪽. “崇尊之也, 德天德也. 天德者甘霖於旱土 陽春於陰谷之類也. 造次之間 苟未有天德 人而不爲人 物而不爲物是以 哲人 孜孜 頌天德.”

10) 自性求子 降在爾腦.

11) 임아상, 『삼일신고, 진리훈 주』, 앞의 책, 34쪽. 大神機 曰見神機 近而自他之臟腑毛根 遠而天上地上及羣世界 地中水中諸形을 瞭然見之也 曰聞神機 天上地上及羣世界之人物語音 皆聞也 曰知神機 天上天下身前身後 過去未來之事 人物心中潛伏之事 神秘鬼藏 無遺洞之也 曰行神機 耳目口鼻之功能 互用하며 無

신비기틀을 보는 것이니(見神機), 저와 남의 오장육부와, 털구멍으로부터 멀리로는 하늘 위와 못 누리와 땅 속 물속의 모든 정형(正形)을 밝게 보는 것이요, 신비한 기틀을 듣는 것이니(聞神機), 하늘 위와 땅 위와 못 누리에 있는 사람과 만물의 말과 소리를 모두 듣는 것이요, 신비한 기틀을 아는 것이니(知神機),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전생과 내생,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들, 사람과 만물의 마음속에 잠겨 있는 모든 비밀을 빠짐없이 다 아는 것이요, 신비한 기틀을 행하는 것이니(行神機), 눈. 귀. 입. 코의 능한 바를 모두 쓰고, 헤아릴 수 없는 땅 속과 석와 돌과 물과 불속을 거침없이 다니며, 몸을 억만 개로 나누어 온갖 것으로 변화하여, 제 맘대로 다니는 것이다.

삼법을 통해 그 능력은 ‘한 뜻으로 모여 행하면(一意化行)’ ‘가달 돌이켜 참됨에 이르고’(反妄則眞), 이를 통해 대신기(大神機)를 발현한다. 대신기(大神機)는 견문신기(見聞神機), 지신기(知神機), 행신기(行神機)이다. 우선 견문신기(見聞神機)는 느낌 그침의 ‘지감법(止感法)’을 통해 ‘참된 성품(眞性)’에 다다라 상등철인(上等哲人)의 신기로 나타난다. 또한 지신기(知神機)는 호흡조절의 조식법(調息法)을 통해 참된 목숨(眞命)에 다다라 중등철인(中等哲人)의 신기로 나타난다. 행신기(行神機)는 금촉법(禁觸法)을 통해 참된 기운(眞精)에 다다라 하등철인(下等哲人)의 신기로 나타난다. 홍암 나철이 대종교의 수행법(止調禁 三法)을 수행한 것은 1908년 12월 동경에서 두일백(杜一白)翁으로부터 영계를 받은 이후이다.

大宗師는 歸國과 더불어 自性 變化에 전력하였다. 政治人을 宗教人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날부터 오로지 檀君大皇祖를 一念으로 모시고 밤을 지새가며 願禱와 수도에 온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¹²⁾

홍암 나철은 남긴 글에서 삼법 수행의 긴요함을 당부하고 수행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공부한 형제자매 삼법(三法) 먼저 세우되
한배의 소리·기운 밖에서 구(求)치 말고
네 신부(神府) 공경하라 네 영대(靈臺) 밝히려
현현(玄玄)코 정일(精一)하면 한울·사람 한 지취(旨趣)¹³⁾
네 진성(眞性) 구(求)할 때에 교교(皎皎)한 저 달 보라.
한 「달」이 각각(各各) 물에 똑같이 찍히어 것만
고요히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휘영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으스름¹⁴⁾

홍암 나철은 삼법이 자신에 내재한 신성을 발현하는 길임을 거듭 밝히고, 이를 통해 신

盡數之世界 如電往返 空中地中及金石水火 無碍通行 分身萬億 變變化化 隨意行之也”.

12) 신철호, 『한국중흥종교 교조론: 홍암 나철편』, 46쪽.

13) 나철, 『중광가 35』, 앞의 책, 72쪽.

14) 같은 책, 72쪽.

인상통의 신성에 이르러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라고 한다. 또한 삼법 중의 지감법(止感法)은 여섯 느낌, 기쁨, 두려움, 슬픔, 노여움, 탐냄, 싫어함(喜懼哀怒貪厭)을 그치어 참성품(眞性)에 이르게 된다.

이 지감법의 공효는 마음의 '편안함(心平)'과 영각(靈覺)이다. 홍암은 진성(眞性)을 달에 비유하고, 심평(心平)을 고요하고 맑은 물에 빗대고, 갈라져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는 물에 비유한다. 홍암 나철은 영성수련을 계속해 72일 간의 '설하석상 금식수도(雪下石上 禁食修道)'를 행한다. 홍암 나철의 72일 석상 금식 수도에 관한 일화는 백강(白崗) 조경한(趙擎韓)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大宗師 弘巖 先生은 撫松의 山에서 滿洲의 그 추운 겨울 눈 내리는 아래 돌 위에 앉으시어 72日 간을 斷食 祈禱를 하셨는데, 모두 일어 돌아가셨다고 걱정을 했었으나, 이제 무슨 造化인지 도리어 弘巖 先生은 불그레하신 얼굴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어서 마치 神靈님이 눈 내리는 山에 내려와 앉아 계신 듯하였다. 이 엄청난 光景이 소문으로 퍼지자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韓國 사람과 中國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죽 엎드려 白頭山神靈님이 내려오셨다고 절을 하면서...¹⁵⁾

이러한 그의 수행경지는 영성수련의 제 1단계, 반망즉진(反妄卽眞)을 통해 삼진(三眞: 性命精)을 먼저 얻고, 영성수련의 제 2단계, 반진일신(反眞一神)의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대신기(大神機)를 발현한다. 홍암 나철은 살아서 그의 대종교 영성수련의 최고수준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수행은 죽음을 통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는 죽음 직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조식법을 통해 스스로 절식(絶息)함을 통해 순명조천에 이른다.

이렇게 절식을 통해 스스로의 목숨을 거두는 것을 폐기법(閉氣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폐기법은 영성수련 최고경지로서 불교의 '좌탈입망(座脫入忘)', 요가의 마하삼매와 상통한다.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여 의연한 자세로 말미암아 홍암 나철은 마침내 성철(聖哲)로 추앙받기에 이른다. 홍암 나철이 영성수련의 역정을 통해 보여준 의미는 홍복상화의 매개로서 의미를 가지며, 그 공효는 공공차원의 만민구제의 공공봉행과 상통한다.

3) 공공봉행(公共奉行)

공공봉행은 타자인과 자연생태계 그리고 문화 환경의 상호매개로 이루어진다. 공공봉행은 타자와의 사랑을 통한 애합과 생태윤리, 그리고 문화윤리를 함께 매개한다. 홍암 나철은 홍복상화를 위하여 타자와 자기를 공공으로 매개하여 봉행하는 공공봉행을 중시하였다. 애합은 타자와 신성을 함께 나눈 일의 형제로서 한 뿌리라는 가치의식을 반영한다. 인간은 타자와 자신을 매개하는 공공봉행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인은 주재자 천신에 그 뿌리를 두기에 서로의 행복을 염려한다. 이렇게 상복매개를 통하여 사해동포의 행복구현

15) 신철호, 앞의 책, 100쪽.

사상이 ‘사해일가(四海一家)’사상이다. 이러한 ‘사해일가’ 사상은 대종교 신앙운동을 함께 한, 백포 서일의 『오대종지강연』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한 뿌리의 나무가 천지만엽으로 번어나가며 천과 만류로 흐르는 물이 동녘바다에 돌아감과 같이 우리 인간의 비뚤함은 한배검 곧 함임의 가륙하신 사랑의 빛이니 필경은 온 누리가 「한나라」로 돌아올지니라.¹⁶⁾

한 뿌리에서 나온 동족은 한얼을 나눈 형제이다. 이들은 만민을 합할 수 있는 천신내린 참 성품, 얼을 구축하고 있다. 천신에게 받은 참 성품은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이므로 이 마음은 종족을 합할 만한 바탕이 된다. 이렇게 참 마음으로 상통한 인간은 가족과 민족을 넘어 인류 모두가 평화와 자유를 구가하게 된다.

사람의 힘으로써 능히 우리 인간에 모든 불평을 불러오게 함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써 제동포를 아끼는 마음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람마다 이 마음을 다 지닌다면 가족으로 집집이 흥왕할 것이요, 민족으로 나라마다 부강할 것이요, 인류로는 온 누리가 평화하리니, 우리 인간의 참자유와 이 세상의 참 문명이 다 여기에 있을 지다.¹⁷⁾

따라서 한얼은 신성(神性), 대덕(大德), 대혜(大慧), 대력(大力)을 고스란히 부여받고 있다. 공공봉행의 제천의식으로서 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마땅히 인간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복매개를 통하여 신성한 존재라는 깨달음으로 공경과 사랑, 관용을 살려낸다. 이에 홍암 나철은 타자를 공경과 사랑, 관용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공공봉행하기를 강조하였다. 결국 홍암 나철은 그가 남기 글에서 인간을 사랑과 공경의 대상으로 보는 상복매개의 애인사상을 강조하고 있다.¹⁸⁾

홍암 나철의 애인사상에 토대를 둔 공공봉행은 대종교 신앙운동의 과정에서 치병과 이적을 펼치는 만주행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홍암 나철이 만주에서 포교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몸으로써 앓는 자의 목숨을 代身한다(以身代命)”라는 한문글자를 집집 문기둥마다 써서 붙이고 치병에 임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목숨을 건 치열함 속에서 공(公)과 사(私)를 함께 매개하여 공공봉행의 가치를 살리면서 이를 서로의 복된 도리로 매개하고 살림을 보여준다.

16) 서일, 『오대종지강연』, 『종사취재고』 (서울: 대종교총본사, 1998), 67쪽.

17) 같은 책, 70-71쪽.

18) 나철, 『密諭』, 『홍암신형조천기』, 앞의 책, 53쪽. “아! 우리 종문(條門)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공경하여 한얼을 받들며 반드시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이 교를 베풀어서 한님 공덕을 빛낼 것이며, 그 업에 쫓아서 사람의 버리를 떨칠 것이다.”

3. 성통공완 교육

홍암 나철은 삼망상극을 상복매개로 홍복(洪福)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통공완(性通功完: 인간자성을 우주본성과 상통시켜 공덕을 완성함)’의 교육을 강조한다.¹⁹⁾ 이러한 성통공완은 공덕으로 신은(神恩)으로 돌려 보은함으로써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성통공완을 위한 홍암 나철의 이 과정은 『중광가』에 기록되어 있다.

일부삼인(一符三印) 거듭 운(運) 빚빚 마다 새로운 신화(神化)
단촌(檀村)에 병(病)을 빌 때 사십일인(四十一人) 곧 소성(蘇醒)
청호(靑湖)에 비를 빌 때 절식(絶食)한 오일 득우(五日得雨)
왕청 · 화룡(汪淸 · 和龍) 밀산(密山)골 종종영험(種種靈驗) 다신명(神明)²⁰⁾

홍암은 성통에서 외국인도 관용으로 대하라고 말한다.²¹⁾ 정체성을 초월하여 인간을 관용할 수 있다는 심정에는 인간이 모든 모양과 차이를 벗어나서 존재뿌리를 함께하는 신에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성을 나눈 ‘얼의 형제’라는 의식이 자리 잡는다. 다원종교 시대에는 타종교를 정복과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치이다. 타종교의 구원 가능성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였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배타적 기독교에서 비롯하였다.²²⁾

성통공완에 비추어 홍암사상에는 종교다원주의 요소를 함축한다. 세계종교 어디서도 명시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허용하는 종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본교를 독신(篤信)하는 사람이 ‘광견익지’(廣見益智)를 위하여 타종교에 참여하여도 금하지 않을 것이오.”라는 선언에서 홍암 나철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마저 포기하면서 타종교에 입교하는 것을 관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철의 대종교 신행의 목표가 궁극진리 깨달음과 공공봉행을 통해 행복상생에 있음이다.

또한 홍암 나철은 차이와 다름을 넘어 적대관계의 악인과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원수 사랑의 실천윤리를 온전히 행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종교성찰이 전제된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요소를 타파하여 신성과 상통하는 성통(性通)이 전제되고 있다. 홍암 나철은 정치외교의 관행을 따라 원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원수에 대한 용서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종교적 깨달음을

19) 최동환, 『삼일신고 인물편』 (서울: 지혜의 나무, 2009), 485쪽. “人物이 同受三眞하니 曰性命精이니라. 眞性は 無善惡하니 上哲이 通하고 眞命은 無淸濁하니 中哲이 知하고 眞精은 無厚薄하니 下哲이 保하니 返眞하면 一神이니라 一意化行하고 反忘即眞하여 發大神機하니니 ‘性通功完’이니라”.

20) 나철, 『중광가 51』, 앞의 책, 76쪽.

21) 나철, 『密諭』, 같은 책, 53쪽. “다른 교인을 별달리 보지 말며, 외국(外國)사람을 따로 말하지 말고”.

22) 배국원,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불교평론』 통권10(서울: 불교평론사, 2002), 18쪽.

통한 성통공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돌아보건대 이 몸이 다시 지난해에 칼을 품고 역적을 죽이려던 인영(寅永)이 아니라 이에 오늘날 정성을 열어서 원수를 돌이키는 철이 되고 또 이 마음이 다시 옛날에 열을 맛보면서 한나라만 사랑하는 치우친 생각이 아니라 이에 이 날로써 어둠을 같이 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한 길을 가졌거늘 오히려 교를 믿으므로 알지 않고 억지로 구속하는가!²³⁾

이처럼 홍암의 원수 사랑의 성통공완은 『참전계경』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밝은이의 사람 사랑은 착한 이를 사랑하고 또한 악한이도 사랑하므로 악을 버리고 착함에 나아가도록 권한다. 사람의 성냄을 가라앉혀 남에게 혐의를 맺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의혹을 해결하여 남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며 사람의 미혹을 인도해서 스스로 깨우쳐 얻게 한다.²⁴⁾

성통공완의 관점에서 홍암 나철은 『참전계경』의 「애인(愛人)」정신을 온전하게 살렸다고 할 것이다. 순명조천(殉名朝天)하며 일본총리, 대외(大隈)에 주는 글에서도 이 정신은 잘 나타나 있다. 한 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원수에게 의분을 접고 그를 용서하였다. 그러므로 천신을 욕되게 함도, 중문을 더럽힘도, 중생을 빠뜨림도 모두 자신의 허물로 돌리며 그에게 도덕적 결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홍암이 상대에게 주려는 깨침은, 무력에 바탕을 둔 정치적 위세가 아니라 선악의 질서에 의해 운용되는 도덕세계라는 사실이었다. 홍암은 악인 사랑의 본질은 악인에게 도덕질서 존재에 대한 깨침이며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통공완의 도리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악인을 사랑하는 성통공완은 악인마저 도덕질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세로 나타난다. 이처럼 홍암 나철은 성통공완의 애인실천으로, 신성이 본성에 내재한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목숨을 건 치병 이적과 관용을 넘은 악인 사랑의 공덕을 쌓았기에 마침내 만인의 죄를 대속하면서 자신의 목숨마저 끊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²⁵⁾

홍암 나철이 대종교와의 만남을 통해 터득한 성통공완은 그의 죽음으로써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상복매개의 한울공경에서 시작하여 성통공완의 방편으로 목숨을 헌신하고, 위로는 천조(天祖)를 대신하여²⁶⁾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경지의 제천의식을 실천하였다. 아울러 성통공완을 위한 폐기법(閉氣法)의 순명(殉名)으로 궁극에 이름으로써, 형제자매의 고통과 겁역(劫厄)을 한 몸에 안고 한 오리 목숨을 거두는 애인극치를 보여줌으로써 홍암은 성통공완의 종교윤리 범례를 실천하였다.

23) 나철, 『與日日本總理大隈抄』, 앞의 책, 78-79쪽.

24) 『참전계경 愛人 條』, 『대종교 경전』, 앞의 책, 326쪽, “哲人之愛人은 愛善人 亦愛惡人 勸去惡就善. 平人 勿結嫌於人 決人惑 勿轉致於人 導人迷 自得於己”.

25) 나철, 『離世歌 三章』, 『홍암신형조전기』, 60쪽.

26) 나철, 『恭告教徒文』, 같은 책, 56쪽.

홍암 순명(殉名)의 뒤를 이은 김교헌은 “뜻을 싸고 글을 끼쳐서 문득 목숨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공적을 마치고 성품을 통하여 곧 한울에 조회하는 길을 지었도다. 천추에 꽃답고 빛나니 해와 별이 환하게 밝고 사해(四海)를 울려서 놀라게 하니 새·짐승이 슬피 울도다.”라고 애도하였다.²⁷⁾

이처럼 상복매개를 통한 한울공경, 영성수련, 공공봉행으로 ‘홍복(洪福)’의 ‘사해동포애’(四海同胞愛)를 느끼는 데 있어서 성통공완의 종교윤리 범례가 중시되고 있다. 삼망상극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은혜를 상기하고, 자타가 함께 ‘플러스 섬(plus sum)’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이 요청된다. 타자를 살피고 자성을 성통으로 밝히고 은혜로움을 베푸는 일련의 종교윤리 범례는 상복매개의 공공봉행 교육범례로서 다원종교의 세계시민성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뜻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를 증산의 해원상생의 종교윤리 범례와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Ⅲ.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종교윤리 범례

1. 선천상극(先天相剋)

선천은 원한상극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지속적인 상호 반목과 투쟁,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혼란이 지배하는 불완전한 세상이다. 증산은 원한상극을 이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상도)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²⁸⁾

인류역사에 재앙이 발생하고 파괴적이 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과 인간을 둘러싸는 환경에 원인을 둔다. 현실의 상극은 사회모순과 대립으로 발생하는 투쟁으로 묘사된다. 상극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소는 인간의 원한(怨恨)이고, 이것이 누적되면 재앙으로 변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도 투쟁과 모순을 본질로 하는 상극이라 한다면, 역사적 흐름은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원한이 증폭되어 인간사회에 파괴행위로 얼룩진 것을 선천 상극현상이라고 한다. 전쟁

27) 김교헌, 『上號表』, 같은 책, 109쪽.

28) 『典經』, 公事 1-2.

은 선천 상극의 대표적인 갈등현상이다. 무기 산업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이 살상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인에 대한 살상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참혹함이 수반되었다. 군사전략의 발전은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군사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부추겨 전쟁빈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욕망실현을 위한 문명발달이 오히려 인간에 대한 파괴와 잔혹을 더해주는 부정적 역할을 발생시켰다.

증산에게 있어서 욕망에 대한 불만족의 결과는 한(恨)·원(怨)·원(冤)의 삼원구조로 나타난다. 인간의 뿌리 깊은 한(恨)은 개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증산은 남녀평등 시대를 열망하면서 평등예법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도리를 천명하였다. ‘한(恨)’이 자기내부의 불만에서 ‘대자적(對自的) 공격’이라고 한다면, ‘원(怨)’은 타자에 대한 ‘대타적(對他的) 공격’이다. 그런데 한(恨)과 원(怨)은 지향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치면 집단을 형성하여 증오에서 복수로 나아간다. 이러한 복수심(復讐心)의 원(冤)은 척(慼)을 쌓아 무차별 공격을 한다. 증산은 무차별 원(冤)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킨다.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冤)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²⁹⁾

이처럼 사(私)의 한(恨, 悔恨)과 공(公)의 원(怨, 怨望), 공공의 원(冤, 冤痛)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증산이 제시한 실천방안이 삼계 천지공사이다. 이는 세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천운(天運)으로 신명세계(神明世界)의 원(冤)을 풀어 주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운(地運)으로 공(公)의 원(怨)을 푸는 세운공사(世運公事)이다. 그리고 사사(私事)의 한(恨)을 풀고 심성을 변화시킴이 도운공사(道運公事)이다.

천지공사는 신명세계, 문명세계, 인간세계를 공공으로 조화롭게 이어주고 살리는 실천 화용이다. 천지공사가 개벽의 정지(整地)작업이라고 한다면, 세운공사는 개벽의 실제(實際)작업이다. 원한은 민중의 원한이다. 한(恨)이 깊이 새겨진 존재가 민중이다. 민중은 억눌린 계층으로 억눌린 만큼 회한이 크고도 깊다. 이처럼 민중과 한은 떼어놓을 수 없다. 증산은 기존의 도덕관념을 투박하게 해체하면서 민중을 대할 때는 인격으로 대하였다. 가령 증산은 김형렬의 종에게도 각듯이 존대어를 사용하거나 인격적으로 응대하였고, 술을 청해 마실 때도 경어를 사용했다는 일화는 이러한 실천면을 보여준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마음에 맺힌 ‘단주(丹朱)의 한(恨)’³⁰⁾을 어떻게 풀 것인가

29) 『典經』, 公事 3.

30) ‘단朱의 恨’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한 권력에 의하여 형성된 한이다. 요(堯)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요의 아들, 단주(丹朱)는 원(冤)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하게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冤)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는 중대문제이다. 민중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자 동학(東學)에서는 사람이 하늘과 상통하는 '다시 개벽'을 염원하였다. 이를 풀지 못하면 상호 증오와 살상행위가 수반된다. 인간이 서로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것은 공공(公共)의 원(冤) 때문이며, 이러한 원(冤)을 가진 인간은 결과적으로 파괴적 속성을 지속하기에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간문명 역시 파괴적 속성을 유지하고 마침내는 비극적인 종말을 예견하게 한다.

2. 상화매개(相和媒介)

비극종말의 치유가 상화매개(相和媒介)이다. 이는 공공의 원(冤)을 풀어주어 서로 간에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산은 천하 만방의 언어·풍속·관습·문자와 상통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大丈夫)요, 대장부(大丈夫)이니라. 이제 천하가 한집안으로 상통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덕이 무르익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후천은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장생하며 자신의 三生을 흰히 꿰뚫어 보고 제 분수를 스스로 지키게 된다.³¹⁾

증산은 민중들을 인격으로 접대하였으며 적서·반상차별을 없이하고 직업귀천도 철폐하였다. 증산에게 있어서 해원은 원통함, 비통함,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 고뇌와 번뇌를 씻는 과정이다. 증산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치권위와 도덕해체를 통하여 민중의 원(冤)을 풀고자 하였다. 상극대립을 극복하려면 상극으로 인하여 발생된 척이나 원한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원한을 해소하는 상화(相和)로 화용할 때, 상호 간의 조화가 가능해진다. 결국 선천 상극의 질서와 환경을 공공으로 바꿀 때 가능하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상화매개를 위한 공공실천에 그 기반을 둔다.

증산의 상화매개는 개인에게 가해진 심리억압, 정치폭력, 억압 이데올로기, 차별제도의 불편부당(不偏不黨)과 연관된다. 따라서 우주운행에 새로운 개벽도수(開闢度數)를 작동시켜 조화기운이 실현되도록 변화를 가해야 한다. 증산의 상화매개는 한국의 전통적 살풀이(解愁: 타고난 愁을 풀기 위한 의례)와 상통한다. 상화매개의 과정은 현재의 질곡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푸는 문화이다. 푸는 문화 원형에 단군신화(檀君神話)가 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림(降臨)문화와 땅에서 사사로운 껍데기를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昇天)문화가 공공으로 아우러지는 상화매개(相和媒介)를 중시한다. 이는 곧 증산의 해원상생에 반영되어 도통진경의 종교윤리 범례를 주문한다.

31) 『道典』 2:16:1-10.

3. 도통진경 교육(道通眞境 教育)

상화매개를 하려면 도통진경 교육(道通眞境 教育: 도통의 영성체험으로 후천선경 세계를 열기위한 교육)이 요청된다. 선천의 상극에서 상화매개로서 상생선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공혁신의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산은 훈회 수칙을 준수하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도통진경 교육을 주문한다. 이에 따라 다섯 가지 훈회(訓誨)교육을 실천하여 도통진경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³²⁾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말라’이다. 마음은 일신(一身)의 주인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私心)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의 본심이요, 사심(私心)은 물욕(物慾)에 의한 욕심(慾心)이다. 인성이 사심(私心)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言動)을 감행(敢行)하니 ‘양심 되찾기’를 강조한다.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데서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罪惡)을 근절토록 하여 도통진경에 이르게 한다.

둘째, ‘언덕을 잘 가지라’이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德)은 도심(道心)의 자취이다. 선악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이 잘 되는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으로 바뀌고,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양(餘殃)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닥친다. 화복(禍福)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言德)을 특별히 삼가는 가운데 발림 말, 꾸밈, 악한 말을 경계하고, 거짓말을 삼가도록 하는 가운데 도통진경에 이르게 된다.

셋째, ‘척을 짓지 말라’이다. 척(戡)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怨恨)이니,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怨恨)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를 거스르는 것이 척을 짓는 행위로서 남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德)으로써 삼는다.

넷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이다. 은혜는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요 저버림은 잇고 배반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이다. 수명과 복록(福祿)은 천지은혜이니 천지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실천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도통진경 교육의 실천으로 보명(保命)은 국가사회에 대해서는 헌신, 봉사,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도리를 다한다. 출생양육은 부모은혜이니 숭선보본(崇先報本)의 대의(大義)로 효도하고 교도육성(教導育成)은 스승은혜이니 포덕(布德)으로 제도함이다. 아울러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면 도통진경에 이른다.

다섯 째, ‘남을 잘 되게 하라’이다. ‘남을 잘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

32) 김용환, 『세계윤리교육』 (도서출판 개신, 2009), 372-374쪽.

며,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이다. 남을 위해서 수고(手苦)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他人)과의 힘을 합(合)하여야 된다. 이에 협력(協力)으로 도통진경에 이르며 생활수칙으로 다섯 규범을 중시한다.

첫째, 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가 차례도덕(次第道德)의 근원임을 일깨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夫婦和睦)하여,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하고, 친우 간(親友 間)에 신의로써 섬기도록 한다.

셋째, 무자기(無自欺)는 도인의 옥조(玉條)니, 양심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하도록 한다.

넷째,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며,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이다.

다섯 째,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서 고쳐 나간다.

아울러 도통진경 실천덕목으로 정경신(誠敬信) 덕목을 내세운다. 먼저 ‘성(誠)’은 입으로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는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중시한다. 천도(天道)에서는 정성(精誠)이며, 인도(人道)에서는 성실(誠實)이다. 정성이 성실되고 성실이 정성 되어 일마다 진실 방편으로서 성취한다. 이처럼 성(誠)은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함이다. 이에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全體)를 통솔이용(統率理用)한다.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정성(精誠)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不足)함을 두려워하는 태도이다.

또한 ‘경(敬)’은 심신(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의 예의(禮儀)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경(敬)’은 남을 대할 때 삼가고 조심하며,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존경(尊敬)의 자세이다. 이는 곧 삼가 조심함이 지극하여 상대방을 신명(神明)처럼 섬김이다.

그리고 ‘신(信)’은 인류의 문화생활에서 신뢰(信賴), 경제생활에서 신용(信用), 정치생활에서 신임(信任)과 상통한다. 자기와 타자의 연대감이 형성될 때 신의(信義)가 올바르게 자리 잡고, 편벽(偏僻)을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쳐 나간다. 바뀌어 옮겨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만고(萬古)를 통해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도록 한다.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고 기약(期約)은 정한 것처럼 한다. 정성(精誠)하여 기대한바 목적에 도달한다.

이처럼 상생실천을 위한 도통진경 교육은 성(誠)·경(敬)·신(信)의 덕목으로 ‘무자기(無自欺)의 선경’으로 인도하는 교육이다. ‘무자기(無自欺)’는 상극이 사라진 공공세상을 구현하고자 천지운행(天地運行)과 수리기동(數理氣動)의 개벽도수(開闢度數)를 중시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홍암(弘巖: 1863-1916, 本名 羅喆, 檀君敎 中興祖)의 상복(相福)을 매개로 삼망을 홍복상생의 가치로 살리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증산(甞山: 1871-1909, 本名 姜一淳, 甞山敎 創始者)의 상화(相和)를 매개로 상극을 해원상생으로 살리는 방안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홍복상생과 해원상생을 오늘날에 살리려면 ‘성통공완’의 종교윤리 범례, ‘도통진경’의 종교윤리 범례가 요청된다. 이들은 인간화복을 상극에서 상복상화(相福相和)를 매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상극이 선천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라면, 상생은 상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실천교육과 연계된다. 홍암에게 있어 상극은 갈등속성으로 삼망(三妄)이며, 증산에게 있어 상극은 파괴속성으로 인하여 인간을 위협하는 선천의 원한이다. 삼망상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복의 매개가 중시된다면, 원한상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화가 매개가 강조된다. 이는 삼원사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홍암에 의하면, 인간은 신성삼덕인 대덕(大德), 대혜(大慧), 대력(大力)을 고스란히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존귀하다. 하늘의 신을 제천의식으로 공경하는 것처럼, 신성을 이어받은 이웃의 인간도 마땅히 공경과 사랑의 대상이다. 같음을 넘어 다름과 적대를 넘어 원수를 매개하는 인간은 서로 신성을 함께 나눈 존재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서로를 공경과 사랑, 그리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다.

이처럼 홍암은 사람을 공경과 사랑, 관용으로 대하면서 공공봉행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홍암이 인간을 사랑과 공경으로 실천하는 애인의 사상은 단군교 중광 이후 만주를 중심으로 펼친 대종교 신앙운동 과정에서 치병과 이적으로 나타난다. 홍암이 만주의 실천과정에서 이 몸으로써 앓는 자의 목숨을 대신한다는, “이신대명(以身代命)”의 글자는 집 문기둥마다 써 붙여 놓았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이 목숨을 건 치열함 속에서 공(公)과 사(私)를 함께 매개하는 공공봉행이 이루어졌다. 상화매개로서는 본성자각 공덕완성의 ‘성통공완’ 교육범례가 중시되며, 그 뿌리가 『참전계경』의 『애인(愛人)』사상에 있다.

증산의 상화매개는 현재의 질곡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푸는 역할을 한다. 푸는 문화에 해당하는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림(降臨)과 땅에서 사사로움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昇天)을 공공으로 아우르는 상화매개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상화매개의 요소가 증산의 해원상생에 반영되어 자기를 속이지 않고 선경을 함께 열어가 는 ‘도통진경’ 종교윤리 범례로 나타났다. 도통진경 종교윤리 범례에서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사상에 그 뿌리를 두며 성(誠)·경(敬)·신(信)의 삼덕을 실천하면서 ‘자기본성을 속이지 않는 도리’로서의 ‘무자기’(無自欺)의 인성교육이 강조된다.

이처럼 인간의 화복과 연관된 ‘성통공완 교육’ 범례와 ‘도통진경 교육’ 범례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남을 먼저 잘되게 하라’는 자타상생의 종교교육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리이타(自利利他), 활사개공(活私開公)의 공공정신(公共精神)을 강조하기에, 서로가 복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근대에 나타난 홍암 나철의 홍복상생과 증산의 해원상생은 결국 상복과 상화의 매개교육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도리는 서로를 살리는 상생가치를 드러내기, 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典經』.
 『道典』.
 『天符經』.
 『大倥教經典』, 서울, 대중교출판사, 2002.
 김동환, 「대종교와 홍익사상」, 『국학연구』 제7집, 서울: 국학연구소, 2002.
 김용환, 『세계윤리교육』, 도서출판 개신(충북대 출판부), 2009.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
 박환, 『나철·김교헌·윤세복』, 서울, 동아일보사, 1992.
 신철호, 『韓國重興宗教 教祖論-弘巖 羅喆 大宗師』, 서울: 각세출판사, 1979.
 안기석,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의 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89.
 양은용, 「한국종교사상사에서 본 신흥종교」, 『한국종교』 23,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8.
 천이두, 『한의 구조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최동환, 『삼일신고 인물편』, 서울: 지혜의 나무, 2009.
 최봉영,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 2004.
 Bell, Art & Strieber, Whitley, *The Coming Global Superstorm*, 오재호 옮김, 『더워지는 지구
 구 얼어붙는 지구』, 서울: 아르케, 2001.
 Laszlo, Ervin, 변경옥 역, *You Can Change the World*, 서울: 유토피아, 2005.
 Küng, Hans(Ed.), *Yes to a Global Ethic*, London: SCM Press, 1996.

원고접수: 2010년 5월 19일 1차 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5일

연구자소개: 김용환

- ① 전공: 종교윤리(서울대 철학박사) / 소속: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윤리, 생태윤리, 세계윤리, 공공윤리
 - ③ 주요논저: 『세계윤리교육』, 『탈현대사회의 가치와 생태윤리』, 『종교윤리와 정산사상』
 - ④ E-mail: sunyanan@cbu.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Paradigm of Religious Ethics of Mutual-Living

Kim, Yonghwa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focus on educational paradigms in the context of mutual living ethics in Korea. First of all, Hong-Am(1863-1916) regard Sam-Mang(三妄) as conflict situation of people. Jeung-San(1871-1909) define resentment and regret as social and personal insufficiency and Won(冤) as group's revenge emotions. Hong-Am believed that the root of these dissatisfactions of Sam-Mang(三妄) can be solved mutual happiness's nature in educational paradigm of religious ethics according to Three true nature recovery method.

Hong-Am, the reformer of Daejong-Kyo established the ideal civilized society that is formed on the basis of grand conviviality. The global village causes more problems than any other period and jeopardizes human survival. Among many problems such as ecocide, religious violence, aggressive warfare and terrorism, nuclear weapons and destruction of humanity, educational paradigm of public mutual living can solve these various antagonism.

This paper is oriented to find out educational paradigm in the mutual living's ethics and practice between Hong-Am's grand conviviality and Jeung-San Master's revenge solution. Jeung-San believed that the root of these dissatisfactions of Won(冤) can be solved mutual living's mind in educational paradigm according to Three World's Heaven Earth Public Affairs.

Firstly, mutual living's mind in educational paradigm includes the educational meaning of media function with conflict situation and regret tradition as the public common value. The principle of publ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revenge emotions can be easily found in mutual living ethical thoughts.

Secondly, the human life can be found diverse complexity as private with other lives in grand conviviality ethics. To create a harmonious education to keep human being

esteem, and public communication as human dignity must be the solutions to various antagonism and many conflicts of the world. To establish the world of mutual living, the mutual harmonious educational paradigms are very important.

In conclusion, mutual living is trans-versal values that require global responsibility for prosperity and happiness and community of rights and global citizenship. Grand conviviality and Revenge solution can serve common goodness as ethical education.

Key words : humanitarian idea, mutual living, trans-versality, mutual conviviality, mutual harmony, grand conviviality, revenge solution, paradigm, global citizenship